

## 2013 춘계학술대회 참석 후기

### (KAPARD-KAAACI West Pacific Allergy Symposium Joint International Congress)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알레르기내과

전공의 박혜정

금년도 춘계학술대회는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서태평양 알레르기 심포지움 (West Pacific Allergy Symposium)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5월 10일(금)과 11일(토)에 걸쳐 개최된 2013년 춘계학술대회는 730여명의 내국인과 3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자유연제 발표와 함께 Plenary lecture, 다양한 주제의 Symposium, Pro and Con, Year in Review 등 풍성한 학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여러 젊은 연구자들의 oral presentation, poster session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해 보는지라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알레르기내과에 정식으로 발을 들인지 고작 몇 개월 된 전공의인 나로서는 커다란 규모의 학회에 놀라울 뿐이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되어 연좌들이 영어로 발표 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해나가는 학술대회의 모습에 더욱 놀라웠다.



[ 첫날, 모든 세션을 마치고 단체사진 ]

첫 날, Fellow in Training Program (FIT) 으로 학회는 첫 문을 열었다. 젊은 연자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공기 오염과 알레르겐에 대해 각 주제로 나눠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면역 요법의 기전과 현재까지 연구된 효과와 실제 그리고 실전 응용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해주셨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면역 요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이 다른 점이 흥미로웠다. 이후 점심을 먹으며 Luncheon symposium 이 진행되었다. 흡입기의 종류에 따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였는데, 알레르기내과에 처음 입문한 나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였다. 어떠한 책에도 잘 나와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요점을 짚어주시며 설명해주셨다.

오후에는, Molecule 기반 알레르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Plenary lecture 를 경청하였다. 이후 WPAS 와 KATRD-KAAACI 두 가지 session 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나는 KATPD-KAAACI (Korean Cohort) session 에 참가하여 강의를 들었다. COPD, Elderly asthma, childhood asthma 에 대해 지금까지 구축한 Cohort 자료들에 대한 정리 및 결과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이후 WPAS (Oral presentation) 과 KATRD-KAAACI (new lessons from large clinical trials)의 두 가지 session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나는 Oral Presentation 연자로 참여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발표이면서 영어로 발표하는 자리라 매우 긴장되었다. 다른 연자들의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presentation 에 꼭 빠져 듣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인 내 차례가 돌아왔다. 많은 선배님들과 저명한 학자 분들 앞에서 아직 새내기인 내가 감히 presentation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렸다. 얼떨결에 준비한 presentation 을 마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강단을 내려오고 나니, 이제 나도 알레르기내과에 몸 담은 젊은 학도라는 생각에 뿌듯했다. Dinner symposium 후 Welcome Reception 에서 뷔페 음식을 먹으며 여러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둘째날, plenary lectureII 강연 모습]



[ 강연 후 discuss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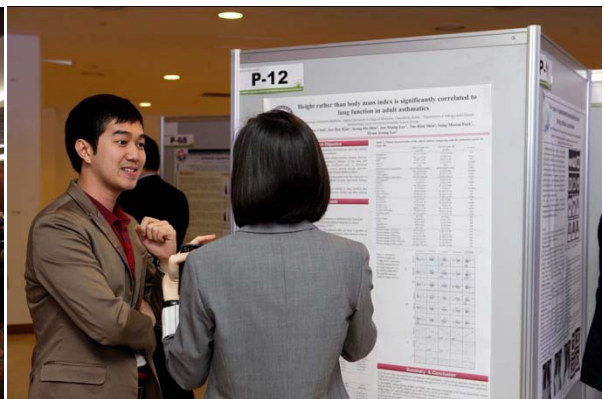
둘째 날,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는 KAPARD-KAAACI의 Emerging issues of specified allergies in practical aspect 였다. NSAID hypersensitivity를 들으며 aspirin 탈감작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되었다. Venom hypersensitivity를 들으며, 벌독에 대한 교차반응과 면역 치료법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oral presentation 을 종일 하면서 다른 강의실에서는 KAPARD award work report 및 Year in review 시간으로 나누어졌다. 나는 또 oral presentation 4, 5 에 각각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동안 진행된 학회에서 모든 강연마다 연자들의 명강연과 함께 더불어 좋은 질문과 코멘트로 토의를 진행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배움의 자리였다.

이를 동안 coffee break 시간에는 poster를 둘러 보았다. 수많은 강연과 oral presentation 에서 미처 다 소개되지 못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각국의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 Poster session 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틀에 걸친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는 천식 및 알레르기에 대한 최신 지견과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연을 통해 많은 학도들에게 배움을 주었으며, oral presentation, poster session 에서는 연구자들의 따끈따끈한 연구 성과를 논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막 알레르기내과에 첫 발을 디딘 새내기인 나에게 이번 학회는 좋은 배움터가 되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공부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준 뜻 깊은 학회였다.



[ Grand Hilton Hotel 강연장 ]



[ Poster session ]